“법당 빌려 교양수업을?”



사찰 법당을 대여해주는 미나토구(區)의 호쥬인(寶珠院) 법당.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 사찰 대여시스템 ‘화제’

요가교실에서 만담회까지
현대 빈 사찰 활용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 많아
사찰 친숙해지는 효과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은 현재 사찰 수는 그대로인데 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 빈 사찰이 늘어나는 실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빈 공간이 된 사찰을 대중들에게 대여해 현대인들과 사찰이 더 가까워지게 돕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산케이 신문’은 1월 17일 ‘가까이 있지만 쉽게 발걸음이 가지 않는 사찰의 활용’을 주제로 도쿄도 미나토구(區)의 호쥬인(寶珠院) 법당 대여 시스템을 특집 보도했다.

호쥬인은 4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면서 도쿄타워 근처에 입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도심형 사찰’이다. 오랜 역사와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참배객과 신도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호쥬인은 사찰 운영 컨설턴트 기업 ‘앵커리지(anchorage)’와의 상담 끝에 법당을 대중들에게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5월부터 법당을 대여하기 시작해 8개월간 약 40건의 대여이용이 있었다. 요가 교실, 아로마 테라피 강의, DIY 장신구 교실, 만담회나 샤미센 연주회 등이 법당에서 열렸다. 호쥬인의 주지 모리 토시히토(森俊人) 스님은 “이용료를 통한 수입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사찰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고, 가깝게 느끼길 바라며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대여자로부터의 피드백도 받아 사찰의 노후화를 막고 사람이 자주 다니니 절에 활기가 붙는다”고 말했다.

사찰서 하는 강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도시 속에 이런 색다른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거나 “강사나 출연자, 그리고 참가자들의 거리감이 적당해서 집중하기 쉽다” 등의 호평으로 답했다.

‘산케이 신문’은 도심의 한가운데에 적정한 요금으로 공간을 빌릴 수 있다는 데 큰 점수를 줬다. 호쥬인의 경우 법당이 비교적 작아 20인 내외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인원의 수용을 위해 증축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호쥬인의 활동은 현재 일본의 출가자 감소와 공찰(空刹)의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겨난 방법의 하나다. 일본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사찰은 2015년 말에 7만7316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수이지만 출가자의 감소와, 상주 승려의 부재로 인해 이미 4분의 1에 가까운 약 2만개소의 사찰이 주지가 없는 공찰로 조사됐다.

핵가족화와 관혼상제의 간소화 등으로 사찰의 운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운영 컨설턴트 ‘앵커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종교법인의 36%인 6만여 법인이 소멸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앵커리지의 홍보담당 스즈키 카나코(鈴木加奈子) 씨는 “이런 환경 속 최근 사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경영상담이 대폭 늘었다”며 “묘비나 명복을 비는 탑을 세우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상담이 많다. 이 경우 사찰의 임야를 이용하여 수목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도쿄의 경우 호쥬인과 함께 근방의 2개소의 사찰에서 법당 대여를 시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원래 도심의 사찰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것처럼, 사찰을 새롭게 ‘열린 장소’로 돌리는 것이 앞으로의 사찰경영의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특히 법당을 대여할 경우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장소를 대여한 주체로서 주지 스님이 간단한 법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좀 더 현대인들을 사찰과 불교에 친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中청년들 사이 떠오르는 신조어 ‘佛系’

〈불계 ·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佛系 사회 · 부모의 압박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
불교에 대한 몰이해, 외동자식의 부담감 투영한 듯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중국 청년들 사이에 ‘불계(佛系, ‘fuo-shee’로 발음)’의 의미가 변모해 ‘사회의 압력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언론 ‘카익싱’은 1월 19일 “어떻게 불자가 된다는 말이 사회의 압력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을까(How ‘Being Buddhist’ in China Morphed Into Ignoring Society’s Pressures)”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카익싱’은 중국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설명했다.

불계(佛系)는 중국에서 불교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쓰이지 않게된 이 말이 새로운 의미의 말로 환생한 것이다. 다수의 중국 젊은 청년들은 불교를 ‘만족을 위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정진하지 않고 단순히 ‘어떻게 되든지(Whatever)’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 단어는 일본의 한 잡지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에 전념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남성을 가리켜 불계남(佛系男)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젊은 청년들이 이미 우울증, 대머리, 이혼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건강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젊은 청년들 사이에는 경력과 결혼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할 의지는 있지만, 사회의 목표와 기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이는 부모님의 압박을 받았던 어린시절에서 오는 트라우마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청년들은 ‘한 자녀 갖기 정책’하에 대부분이 외동자식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부 부모는 자식의 2번째부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자식이 한 명뿐이다 보니, 자식의 성공에 더욱 집착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중국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항상 사회 이슈로 내놓기도 했다. ‘카익싱’은 “한 자녀 갖기 정책 하에 성장한 세대의 성장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에베레스트 정상서 “부처님은 네팔사람!”

전세계에 알리고자… 두 여성 주장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두 여성이 흔든 깃발의 디자인. 사진출처=마이리퍼블리카

세계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를 특별한 의도로 등반한 두 네팔 여성이 화제다.

‘마이리퍼블리카’는 “두 여성이 ‘부처님은 네팔서 태어났다’고 외치기 위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다(Two women to scale Mt. Everest, to announce ‘Buddha was born in Nepal’)”고 1월 22일 보도했다.

네팔 출신의 두 여성은 오직 부처님의 출생지가 네팔임을 밝히기 위해 8,848m를 등반했다. 정상에 선 두 여성은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났다(Budhha was born in Nepal)’고 써있는 깃발을 정상에 꼽고, 더라이 라이(Dhiraj Rai)의 ‘부처님은 네팔출신’이란 노래를 틀었다. 두 여성은 인터뷰서 “등반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인도서 태어난게 아니냐’고 묻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출생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전 세계에 부처님이 네팔에서 태어났음을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기자

死後 100일, 미소지은 고승

작년 11월 입적, 일체의 방부처리 없어
살아생전의 수행과 계행의 결과로 전해



등신불 상태의 루앙 포르 피안(Luang Phor Pian) 스님. 사진출처=The Sun

태국의 한 스님이 입적한 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어 화제다.

‘Daily Mail’ ‘The Sun’ 등 외신들은 “태국 스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사망 뒤에 되려 미소를 띠었다”고 1월 22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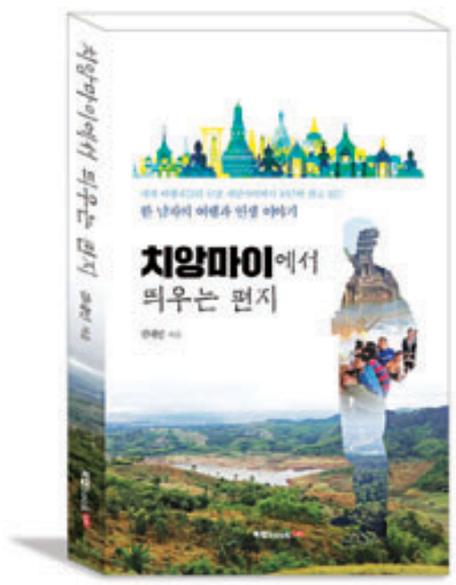
이 미스테리의 주인공은 작년 11월 세납 92세로 입적한 루앙 포르 피안(Luang Phor Pian) 스님이다. 루앙 포르 피안 스님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오랫동안 태국의 롭푸리(Lopburi)지역에서 활발히 포교활동을 해왔다. 스님은 약 16년 전부터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가 작년 11월 16일 방콕의 병원에서 입적했다. 법구는 관에 실려 롭푸리의 절로 이운되었다.

입적 후 100일, 제자들이 법구에 새로운 가사를 입히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피안 스님의 법구에 방부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얼굴엔 은은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미소가 사후 당시가 아닌, ‘등신불’의 상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신자들은 이것이 피안 스님이 살아생전 청정한 계행을 지니고 열반의 경지에 이른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피안 스님의 법구는 새로운 가사가 수해지고 제자들과 신도들의 독경 가운데 다시금 본래의 관 안에서 쉬게 되었다.

한편, 불교 문화권에서는 선정에 든 채로 입적하여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등신불’이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등신불로는 중국의 김교각 스님이 있는데, 이런 등신불은 불자들의 공경을 받는다.

박영빈 객원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